

1월 3일(월) / 시 61-63

▶ 내용요약 : 시편 61편에는 대적으로부터 구원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와 고백이 담겨져 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서원을 이행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62편에는 다윗의 탄식과 교훈적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다. 다윗은 대적들의 음모로 인해 괴로웠다. 그러나 그는 잠잠히 자신의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자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63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가 담겨져 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61편)
“내가 영원히 주의 ()에 머물며 내가 주의 () 아래로 피하리이다”

▶ 생각하기 : 우리의 서원을 이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포장된 표현이 아닌, 절대적 사실이다. 새해에 다짐한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자.

1월 6일(목) / 시 70-72

▶ 내용요약 : 시편 70편에는 대적들로부터 구원해주시길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 다윗은 다소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주를 찾는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기를 간구했다. 71편에는 시편기자의 탄식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피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망이시며 자신이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심을 고백했다. 이처럼 시편기자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며, 구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72편은 솔로몬의 지혜시이자 제왕시이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가 왕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의 통치를 통해 백성들이 구원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71편)
“나는 항상 ()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하리이다”

▶ 생각하기 :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월 9일(일) / 시 82-84

▶ 내용요약 : 시편 82편은 불의한 주권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 분이시며,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을 행하는 통치자들이 있었다. 이에 아삼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심판과 주권적 통치를 선포했다. 83편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시이다.

1월 4일(화) / 시 64-66

▶ 내용요약 : 64편에서 다윗은 대적들의 악한 꾀와 죄로 인해 하나님께 탄식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했다. 그리고 악한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65편은 다윗의 찬송시이다. 다윗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데 존재이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66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편기자의 감사가 담겨져 있다. 그는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할 것을 고백하고 교훈했다.

▶ 질문 : 시인은 누구에게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했는가? (66편)

▶ 생각하기 : 죄를 범하는 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자. 그분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 구원자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일 것인가?

1월 7일(금) / 시 76-78

▶ 내용요약 : 시편 76편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이다. 하나님께서는 경외 받으실 분이시며, 모든 만물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에 시편기자는 회중들에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감동하며 경외할 것을 교훈했다. 77편에서 시편기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침묵하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은총을 거두실까 염려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묵상하며 다시 소망과 믿음을 굳게 붙잡았다. 78편에는 아삼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 아삼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귀를 기울이도록 백성들에게 교훈했다. 그리고 과거 선조들의 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떠나지 않도록 경계했다.

▶ 질문 :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무엇 같이 인도하셨는가? (77편)

▶ 생각하기 :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적 유익을 준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한다. 둘째,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경계함으로써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지난 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시편기자는 침묵하거나 잠잠하지 마시고 교만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동맹을 폐하시길 간구했다.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 드러나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84편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장막을 사모하고 있음을 고백했다. 또한 시온을 향한 순례자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노래하면서 자신 또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1월 5일(수) / 시 67-69

▶ 내용요약 : 시편 67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편기자의 확신에 찬 간구와 찬송이 담겨져 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주의 도를 온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시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68편에서 다윗은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땅의 왕국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도록 권고했다. 69편은 다윗의 탄식시이다. 다윗은 자신이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다. 그 모든 조롱과 수치로부터 자신을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다짐하며 고백했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69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하리이다”

▶ 생각하기 : 다윗은 깊은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그의 탄식은 절망이 아닌 찬송이 될 수 있었다. 기억하자. 진정한 찬송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월 8일(토) / 시 79-81

▶ 내용요약 : 시편 79편에는 포로생활 중인 이스라엘이 자신의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길 간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파멸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80편에도 자신들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시편기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탄식했다. 그리고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길 간구했다. 81편은 절기를 위해 지어준 아삼의 시이다. 아삼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권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복을 누리기를 소망했다.

▶ 질문 : 시편기자는 무엇을 비추시길 간구했는가? (80편)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들은 겸손과 지혜의 태도로 지켜야 한다. 물론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문화와 사회적 특성 또는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예배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 질문 : 아래 빈칸을 각각 채우시오. (84편)
“주의 궁정에서의 ()이 다른 곳에서의 ()보다 나은즉 ()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분임을 스스로 증명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